

“순교자 성월”에 묵상하는 <순교의 삶>

우리교회는 이 9월 달을 순교성월로 정해놓고 순교에 대한 깊은 묵상, 또 삶을 뒤돌아보게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순교에는 육적인 순교가 있고 영적인 순교가 있습니다. 육적인 순교는 말 그대로 하느님을 위해서 하나 뿐인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순교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영적순교인데, 영적순교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때는 절대로 육적인 순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순교의 첫 단추는 화내는 것을 참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분노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찌 묵숨을 내놓는 그러한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다보면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또 내 그릇을 조금 더 넓혀서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또 저주하고 미워하기 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이것이 바로 순교의 시작입니다. 화내는 것을 참는 것은 기초적인 포기입니다. 왜냐하면 화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쪽에서 나타나는 방어본능이기 때문에 화내는 것을 참는 것이 자기의 애착으로부터 끊어버리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기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성 중에서 가장 어렵지만, 하느님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포기의 영성입니다. 영적순교의 두 번째는 자기 혀를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느님 앞에 늘 부끄러운 것 대부분은 혀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가 영혼을 다스린다!” 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우리 몸속에 깊숙이 입속에 감추어져있지만 이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차지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않고 어찌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지껄이고/ 없는 말 꾸며내고/ 보지고 않은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하고/ 조금 아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까? 세 번째 영적순교는 자기 악습을 이기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악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때마다 전구를 해야 되고 내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이 악습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것으로부터 참고/ 혀를 다스릴 줄 알고/ 자기 악습을 이기고/ 그러면 저절로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이 생깁니다. 그 선물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미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화나는 것을 참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내 악습을 포기할 때,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요, 영적인 부활임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의 교회이고,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영적축복은 우리 순교선열들의 피가 거름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를 맺어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있어서는 냉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다가 모진 매질을 합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 밖으로 뼈가 튀어 나와도 ‘배교해라.’ ‘십자가에다가 침 한번 뱉어라. 그럼 살려주겠다.’ ‘나 안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중요한 귀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침 뱉지 않았고, 포졸들이 하도 답답해서 한동네 사람이니까 “이보게 침 뱉고 나가서 다시 천주학 믿어. 나가서 자식새끼들 데리고 살아야 될 것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답답하게 꼭 맥혔나? “ 단 1초라도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배반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분 좋으면 성당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냉담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장식품이고, <순교자의 정신> 이라고 하는 것은 소귀에 경 읽기와 똑같을 겁니다. 순교는 분명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영적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과연 그 분들은 어떤 영적훈련을 받았을까요? 순교자들이 했던 영적훈련은 첫 번째가 수계생활에 철저했습니다. 십계명의 깊은 뜻을 잘 알았습니다. 하느님을 흠송하고 인간을 사랑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었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성서 어디를 봐도 혼자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간다는 말 없습니다.

적극적인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무관심으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수계생활에는 소극적인 수계생활이 있고, 적극적인 수계생활이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지 말라!>를 지키는 것이 소극적인 수계생활입니다. 적극적인 수계생활은 <베풀어야 한다! >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소극적인 수계 생활로 만족합니다. ‘나 도둑질한 적 없지? 간음한적 없지?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 적은 없지?’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고 삽니다. 비록 귀동냥해서 배운 교리였지만 <하느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다가 헛바닥이 뽕혀서 죽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하느님을 증거 하는 그 헛바닥은 천국을 차지할 겁니다. 두 번째 영적 훈련은 기도생활에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기도서 책이 있었겠습니까! 영적독서 책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영적독서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TV와 컴퓨터 앞에서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성서와 성인전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서 책이 없었던 그 시절 일일이 손으로 써서 외었고, 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저 컷전으로 들어서 외운 기도문이었지만 모든 신공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신공(神功)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로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조과를 바쳤고 저녁에는 만과를 바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아침기도입니다. 저녁에 잠들 때는 아파 죽을 지경이라도 저녁 만과를 바쳐야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저녁에 만과를 바치지 않으면 절대로 잠자리에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그 부모님을 보고 자식들이 무슨 기도하는 걸 배우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감돏입니다. 이 감돏이 무겁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훌훌 벗어던져 내던져버리면 사탄이 쏘는 화살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교자들이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끌려들어오면서도 감옥 안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배교하지 않고 순교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감옥 안에서 눈물로 바쳤습니다. 장소가 어떻게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던 기도만큼은 놓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핑계 대면서 기도를 놓고 삽니까? ‘오늘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 하겠어!’ ‘오늘 화가 나서 기도도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하늘나라에 쌓는 보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훈련은 철저한 전교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하느님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박해받았던 시절에 어찌 마음대로 다니면서 “나 천주교 신자이니 함께 성당 나가자” 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놓고 전교할 수 없었던 그 시절, 하느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은 웅기장수를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전교했습니다. 목숨을 건 전교였습니다. 과연 나는 세례 받고 지금까지 몇 영혼이나 하느님 앞에 인도 했는지 돌아켜 보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거룩한 교회의 품에 돌아올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무관심, 무성의 때문에 입교시킬 수 있는 사람을 못 입교시킨다면 이건 분명히 하느님 앞에서 부끄럽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세 가지 영적훈련을 통해서 모진 고문을 이겨내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적 훈련을 꾸준히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순교성인들께 전교를 청함시다. 천상에 계신 순교성인성녀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김웅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사제의 해”에 바치는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본 당 소 식

◎ 축하합니다!

오늘 미사 중 8명의 새로운 신자가 탄생합니다. 세례성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교우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새 교우들은 한 달 후 고백성사를 하십시오.

◎ 구역장 및 단체장 협의회 모임 안내

오늘 천교식사 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키치너 네바다 기금을 Donation 해주신 부승민(요셉)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공동체 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신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하느님 보시기에도 참 좋을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삶의 본보기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 견진성사 교육 안내

일시 : 9월 16일(수) 오후 8시

9월 18일(금) 오후 8시

장소 : 교육관

◎ 9월 구역모임 안내

▷ 브랜포드 24일(목) 7시 박순웅 형제님 댁

▷ 워털루 1구역 19일(토) 7시 박재영 형제님 댁

앞으로 구역모임에 본당신부님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구역장님께서는 미사를 원하면 미리 신청하시고, 미사없이 구역모임만을 하시면 별도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 2009년 여성 꾸르실로 주말 신청 안내

일 시 : 10월 15일(목) - 10월 18일(주일)

장 소 :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신청마감 : 9월 15일 (화) / 참가비 : \$ 320.00

문의: 율뜨레야 간사 김현태 요셉

◎ 10월 안내 담당은 워털루 2구역입니다.

▷ 11월 : 청소년부

▷ 12월 : 사목회의

◎ 교육관 관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10월 : 워털루 3구역

▷ 11월 : 워털루 3구역

◎ 성모회에서 버섯 판매를 합니다.

문의 : 성모회 총무 한 데레사

◎ 본당 홈페이지 오픈

kwpaul.com 또는 www.kwpaul.com

정식 오픈은 본당 창립기념식을 갖는 9월 20일이며, 글쓰기는 안 되나 미리 둘러보기는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대해 개선할 사항은 한택중 막시모 형제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 본당 창립기념 미사 및 축하식 & 견진성사

다음 주일(9월 20일)은 해밀턴 교구장님과 많은 내 외빈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공동체가 하나되는 모습으로 축제일을 지내야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성당에 와주시고, 성당에서 조용하게 묵상을 하면서 5시 미사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가깝게 지내는 분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 =

Cambridge Town Center 내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부문 : 주방 헬퍼, 주방아주머니

전화 : 416-919-9091

▣ 본당신부 단상(斷想)

주보에는 게재하지 않고 본당 홈페이지에 게시 하겠습니다.

2009년 8 월30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65.00	
교 무 금 : \$	
감 사 금 : \$	
성전건립 : \$ 100.00	198(80) 226(20)
(성모동산 누계 : \$ 2345.00)	
합 계 : \$ 865.00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2009-38호

2009. 9. 13.

연중 제 24주일 미사 전례

해 설 김손권 차주 해설 김현태

성 가

입당 (1) 나는 믿나이다.
봉헌 (340) 봉헌
성체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퇴장 (286) 순교자의 믿음

화답 송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 하나이다.

	독	서
9월 13일	정경래	정문진
9월 20일	견진자	
봉 헌		
9월 13일	새 영세자	
9월 20일	견진자	

	복	사
9월 13일	구하람	김근영
9월 20일	구한힘 외 4인	

	친	교
9월 13일	성모회와 워털루 2구역	
9월 20일	본당의 날 기념잔치(사목회 주관)	